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내가 · 버린 · 여자
(わたしが · 棄てた · 女)』 고찰
- 요시오카의 내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

金河沈*

A class middlebrow fiction 『Watasiga · Steta · Onna』 was published by Munyeachunchushinsa. This story should not be read as a common girl Mitz, becoming a woman saint, but I think that it should be read with the focus of the impact on Yoshioka by Mitz being holy. Not in Mitz's perceptions, but in Yoshioka's mind, it became clearly evident. The structure of 『Watasiga · Steta · Onna』 is made up of "My autobiography" based on Yoshioka's reminiscences and Mitz's story, "The spot on my wrist" written in third style. 『Watasiga · Steta · Onna』 by observing the transition of Yoshioka's mind and feelings which has not been given much attention up to now.

The identification with the pains of Mitz's actions which she did not know what it was, could be said in other worlds, a fate of sense of solidarity, however, after Endo's first novel, in the books, but gradually, the tone gets heightened, and in 『Watasiga · Steta · Onna』 it was clearly the main theme, and more so in Silence, it was intensified to become an idea of the writer's distinctive love.

Key Words : Selfish Human, irremovable trace, solidarity of agony
(이기적인 인간, 지울 수 없는 흔적, 괴로움의 연대감)

1. 서론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1996, 이하 엔도라고 함)는 일본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을 대표하는 가톨릭문학 작가이다.

일본의 많은 작가들이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으나 대부분 신앙이 정착되지 못한 채 문학의 길로 감과 동시에 가톨릭과 결별하게 된다.¹⁾ 하지만 엔도는 일본 전후의 가톨릭문학계의 선구자로서 전후 문학에 있어 평론과 소설을 통하여 다른 작가가 파고들지 못한 종교적과제를 추구해왔다.

엔도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자신의 비자발적 세례를 '몸에 맞지 않는 양복'으로 비유하며 이질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고, 적극적으로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맞게 고쳐 입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을 평생의 문학테마로 삼았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예수에 대한 거리감에 대해 에세이 『나와 그리스도교(私とキリスト教)』에서 밝혔다.

일본인이라는 사실과 가톨릭 신앙은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며 그 가르침이 보편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가톨릭의 전통도 문화도 역사도 전혀 없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이 가톨릭에 물들지 못하고 오히려 가톨릭과는 상반되는 감각이 숨어있다는 것을 청년이 되어 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²⁾

엔도는 서구의 유일신을 일본에서 어떻게 토착화시킬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단으로써 소설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였다.

엔도의 작품들은 그 장르와 내용에 있어서 순수소설, 중간소설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바다와 독약(海と毒薬)』³⁾, 『침묵(沈黙)』⁴⁾ 등으로 대표되는 순수문학 작품군, 다른 하나는 『오바카상(おバカさん)』⁵⁾, 『헤치마군(へちまくん)』⁶⁾, 『내가·버린·여자(わたしが

1) 久保田暁一(2006) 『日本の作家とキリスト教』 朝文社、p.7.

2) 遠藤周作(2000) 『私とキリスト教』全集12、新潮社、p.306.

3) 『海と毒薬』文学界 6・8・10 게재. 2차 세계대전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다.

4) 『沈黙』1966년 발표. 新潮社에서 간행.

5) 『おバカさん』1959년 3월 26일에서 8월 15일까지 아사히신문에서 연재→신문연재 최종호로부터 2개월 후, 같은 해인 10월 15일에 단행본 『바보(おバカさん)』

·棄てた·女)』 등으로 구성되는 중간소설 작품군이다.

엔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많은 독자들이 즐긴 소설잡지, 주간지, 부인지 등에 소설작품을 발표했었다.

기존의 대부분의 국내외의 연구가 순문학을 중심으로 되어있고 순문학에 비해 중간소설은 통속적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중간소설인 『내가·버린·여자』는 1963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부의 벗(主婦の友)」에 연재되어 1964년 3월에 문예춘추신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주부의 벗」의 예고에는 ‘주부의 벗을 위해 구상을 가다듬고, 2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여 회심의 붓대를 잡았습니다⁷⁾’라고 적혀 있고, 「작가의 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소설가는 당신과 같이 보통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복이나 희
을 얻고자 고민하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것처럼, 소설가도 헤매
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설에서
우리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지만,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세계에 들어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가 보려 합니다.⁸⁾

자신이나 독자와 같이 평범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집필
하고자 했던 의도가 보인다.

성녀라고 불린 모리타 미츠(森田ミツ), 그렇게 믿게 된 요시오카
츠토무(吉岡努),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작품세계는 보통의 독자들
처럼 평범한 보통 인간이라는 설정 아래에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평범한 보통여자 미츠가 성녀가 되는 이야기로 읽혀져야 될 것이

ん)』가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에서 단행본으로 출판→1962년 8월 15일 문고
판인 『바보(おバカさん)』는 가도카와(角川)서점에서 문고판 간행→1971년 4월
15일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에서 단행본 개정판 간행.

6) 『へちまくん』지방지 1960년 5월에서 11월까지 연재. 1961년 5월 新潮社에서
간행됨.

7) 遠藤周作(1962) 『村録と新連載小説-予告』 『主婦の友』 12月号、主婦の友社.

8) 遠藤周作(1962) 『人気作家の野心作登場! 長篇小説 さようなら』 『主婦の友』 12月
号、主婦の友社、p.132.

아니라, 그녀와 연관된 요시오카에 남겨진 흔적이 성스럽게 되어간다는 점에 착안하여 읽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성녀란 미츠 자신의 인식 속이 아닌 요시오카의 내면에 뚜렷하게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모티브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인생을 표현하고자 했던 엔도의 창작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간소설이 갖는 대중성이 이 모티브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버린·여자』의 등장인물의 평범한 성격이나 도쿄 거리의 흔한 일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사람에서 성인(聖人)이 되어지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집필했음을 알 수 있다.

『내가·버린·여자』⁹⁾의 구성은 요시오카의 회상에 의한 「나의 수기(ぼくの手記)」(1)~(7)과 3인칭 시점으로 미츠의 이야기를 쓴 「손목의 반점(手の首のアザ)」(1)~(5)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속의 10년 이상의 세월 중에서 실제로 요시오카가 미츠와 직접 연관된 시간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츠의 존재는 긴 세월이 지나 요시오카에게 '나는 지금 저 여자를 성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할 만큼 그 안에 뿌리내렸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요시오카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내가·버린·여자』의 주제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 미츠를 버리기 전 : 죄의식의 부재상태

요시오카는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 되지 않은 도쿄의 변두리에서 하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학생이긴 하나 도쿄대 같은 일류대 학생도 아니고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돈과 여자에 대한 갈망이 많다. 아르바이트 도중 우연하게 낚은

9) 遠藤周作(1984) 『わたしが・棄てた・女』 講談社(이하 본문 인용은 페이지만 표시함)

잡지를 주워보게 된다. 그것은 영화와 유행가 잡지였는데, 끝 페이지에 있는 독자 통신란에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19세의 평범한 여자아이라는 문구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옆의 모리타 미츠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자신의 욕망의 해결을 위해 누구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미츠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다.

미츠는 작고 뚱뚱하고 세 가닥으로 머리를 땀은 촌스러운 모습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되었지만 어차피 욕망의 해소용으로 만났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여관까지 끌고 간다.

“싫어, 무서워. 무서워요”
“좋아, 좋아한다고. 좋아하니까 너와 아까 술집에도 간 거잖아. 좋아졌으니까 함께 걷고 있는 거잖아”
이것은 모든 남자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의 육체를 범하려 할 때 쓰는 말이었다. (p.42)

미츠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요시오카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유혹한다. 미츠는 태생적으로 타인의 불행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임을 간파하고 소아마비를 앓은 것을 이용해 연민의 정과 동정을 불러일으켜 두 번째 만남에서 순결을 빼앗고 만다. 요시오카가 미츠의 몸을 뺏은 직후의 장면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이없게 끝이 났다. 정말 그것은 어이없게 끝이 났다. 갑자기 지금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태양에 불그스름한 갈색으로 색 바랜 다다미도, 모기를 죽인 피의 흔적과 손가락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벽에도, 이불도, 그릇에도, 모든 것이 나에게서 갑자기 불결하여 구역질이 날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직 침대 위에서 시체처럼 누워있는 미츠까지 불결하고 불쾌하였다. 땀이 배어있는 이마, 두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그 이마에 딱 붙어있다. 불품없는 주먹코. 검색의 스웨터. 팔 손목 근처에 보인 검붉은 반점. 남자의 셔츠. 나는 이런 더러운 듯한 여자와 잤다. 이런 더러운 듯한 여자의 가슴에 입을 맞췄다. 담배는 맛없고 매웠다. 이슬비는 아직 창문틀을 적시고 있다. 하늘은 회색빛의 구름이 가득한 것 같은 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시부야의 거리가 그 아래에 누렇게 애처롭게 퍼져 있다. (중략) 싫다, 싫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싫다. (p.71)

요시오카의 쓸쓸함과 공허한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때의 요시오카는 여관방과 미츠를 불결하여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쓸쓸하고 비참한 생에 대한 거부감과 욕망에 휩싸여 미츠를 안은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감정일 것이다. 여관 밖에는 시부야의 거리가 그 아래에 누렇게 애처롭게 퍼져 불쾌감은 더욱 심해진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모두 짊어지고, 가까이 가려고하는 미츠의 태생적 순수함을 이용하긴 했지만 '싸구려의 연민과 싸구려 동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점차로 평범한 행복을 손에 넣는 것만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무의식적으로 느낀다. 요시오카가 선택한 행동은 미츠를 이용하고 버린다고 하는 비열한 것이었지만, 미츠와 육체적 관계를 맺은 후 그가 '싫다, 싫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싫다'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대한 초조함의 표출로도 볼 수 있다.

30분 후 시부야역에서 미츠와 헤어졌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그녀는 요요기에서 갈아타는 내 뒤를 플랫폼까지 강아지처럼 따라왔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특별히 그녀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지만, 욕망이 끝난 뒤 이런 바보스러운 여자애와 잠시라도 함께 있는 것이 성가시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중략)

누가 다시 만날까, 너 같은 애하고.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전차에서 우연히 어깨를 부딪치고 발을 밟는 자들처럼 남남이야. (p.69)

애원하듯 매달리는 미츠를 이렇게 버리고 만다. 처음부터 육체만 원했기 때문에 계속 만날 생각 따위는 없었다. 미츠의 순진함과 순수함을 희생시키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죄의식이 부재된 상태의 이기적인 인간 요시오카였다.

타인의 고통에 관심 없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에 태연한 것은

타인의 운명에 대한 연대감이 결여된 것을 나타낸다. 이 운명의 연대감에 대해서 다케다 도모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통의 공감은 또한 운명의 연대감으로 바뀌 말해도 좋은데, 그것은 엔도씨류의 성서의 사랑에 대한 성육신(成肉身)이다. 초기소설이래 이 문제는 작품주제의 배후에 인지되어져 있지만, 점차 음조를 높여 제 2기 작품군의 기본주제가 되어 『내가·버린·여자』에서 확실히 주요테마가 되고, 더욱이 『침묵』에서 심화되어 작가 고유의 사랑의 사상이 되어 간 것이다.¹⁰⁾

운명의 연대감이란 엔도의 가톨릭문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초기 작품부터 이어져 온 고민이 『내가·버린·여자』에서 더 깊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3. 미츠를 버린 뒤 : 지울 수 없는 흔적

미츠를 버린 후, 요시오카는 미츠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지워가지만, 그래도 학창시절 미츠를 두 번 정도 생각한다. 애드벌룬을 감시하는 아르바이를 할 때에는 눈앞에 펼쳐진 도쿄의 거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과 겹쳐본다.

많은 인생이 있구나. 여러 가지 인생이 있어. 조금 차가워진 난간에 기대어 나는 막연히 중얼거렸다. 이 마을에서 모두 살아가면서 기뻐하거나 괴로워하는구나. 그 순간 갑자기 미츠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젠가 들었던 유행가는 아니지만, 그녀는 지금 이 회색빛의 안개와 연기로 뒤덮인 대도시의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생각났다. (p.127)

요시오카의 의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 도쿄의 풍경을 보고 미츠를 떠올린 요시오카는 미츠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보이

10) 武田友寿(1975) 『遠藤周作の文学』 聖文舎、p.148.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요시오카는 니혼바시에 있는 못 도매상에 취직한다. 요시오카는 사장의 조카인 미우라 마리코(三浦マリー子)에게 접근해 사귀게 된다. 요시오카가 마리코와의 행복에 젖어있을 때에도 미츠를 안은 장소, 그 여관이나 고갯길 등이 문득 생각났다. 요시오카는 이러한 상념을 ‘나는 이런 센티한 남자는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애써 뿌리치려 한다.

이해타산적인 요시오카는 마리코와 교제하면서도 잘 보이기 위해 약혼자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 게다가 마리코에게 느끼는 욕망의 해결을 위해 사창가에 들린 것이 동료에게 들켜 그 곳에도 갈 수 없게 된 요시오카는 이후 사창가에 가는 대신 그녀를 안겠다고 생각하여 미츠의 소식을 좇는다.

어째서 마리코의 입술이나 순결을 중요시 여긴 것일까.

물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녀의 신용을 잃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중략)

여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 A류 여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을 B류 여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A류 여자 에게는 미우라 마리코가 포함되어 있다.

B류 여자 속에는 거리의 창녀나 모리타 미츠가 포함되어 있다. (pp.129-130)

미츠를 수소문 하다가 자신에게 버림받은 후, 그녀가 또 사람을 너무 믿어 도와주려다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빠짱코가게, 터키탕, 술집여성으로 전락하고, 게다가 어떤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요시오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몸 뿐 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가는 것을 느낀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컷가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있잖아, 네가 그날 그녀와 만나지 않았다면 ... 이라고 그 목소리는 말했다. 그 여자도 다른 삶을 더욱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일일이 그런 것 신경 쓰다간 누구와도 만나지 못해.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건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복잡한 거야.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돼.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만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빗속을, 몸이 젖는데도 계속 걸어갔다. 마치 그 시부야의 밤, 강아지처럼 따라온 미츠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역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p.150)

요시오카는 미츠의 인생을 자신이 망가뜨렸을 지도 모른다고 하는 감상적인 기분과, 자기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심정 속에서 번뇌한다. 타인이 저지른 죄까지 뒤집어써서 일부러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고 있는 미츠의 삶을 느끼면서 요시오카는 미츠가 자신에게 남겨둔 흔적의 크기를 통감하게 된다.

미츠의 존재가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 요시오카는 자기의 감성적인 측면을 점점 더 누를 수 없게 된다. 마리코와 결혼하여 학창시절부터 꿈꿔왔던 행복을 손에 넣었을 때도, 자신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는 잘 해온 것이다. 그러나 마리코와 결혼한 것은 물론 계산도 있었지만, 나는 마리코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 애정은 에고이즘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 에고이즘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다면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듯하다. 내가 잘 처신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리코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일까. (p.270)

여기서 요시오카의 생각은 진지하면서 깊다. 요시오카는 마리코에 대한 애정에 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을까? 그것은 동료들이 사장의 조카와 결혼한 것을 질투한다는 것을 알아서이기도 하지만 미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요시오카가 말한 에고이즘이나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의 애정은 타인이 저지른 죄까지 뒤집어써서 일부러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고 있는 미츠의 삶 속의 애정과 다르며, 욕망이나 에고이즘에 몰두하여 살고 있는 인간의 고독과 대조된다.

요시오카는 마리코에게서 '요시오카씨는 때때로, 갑자기 외로운 듯한 표정을 짓네요', '당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한 번씩 듣는데, 연애나 일에 성공을 거둬도 여러 형태로 미츠가 문득 떠오르기 때문이다.

결혼에 미츠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시오카이지만 미츠에게 연하장을 보낸다. 이것은 요시오카의 내면이 미츠의 삶 어딘가에 반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하장을 계기로 요시오카는 수녀로부터 편지를 받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강하게 느낀다.

4. 미츠의 죽음 뒤 : 흔적을 통한 깨달음

한센병으로 진단받고 부활병원에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생활을 하던 미츠는 오진이었음이 밝혀져 병원을 나오려다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그곳의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츠는 환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얻은 달걀을 팔러 나가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요시오카가 보낸 연하장에 대한 답으로 요양병원에서 미츠와 함께 일했던 야마가타(山形) 수녀가 대신 보낸 편지를 통해 미츠의 죽음을 알게 된다.

미츠양에게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언제나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인간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도 또한 같은 고통을 나눠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중략)

미츠양은 그 고통의 연대를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중략)

혼수상태에서 미즈양은 꼭 한번 눈을 희미하게 뜨고 무언가 찾는 듯 손을 휘저으며,

“안녕, 요시오카씨…….”

이것이 미즈양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중략)

만일 신이 내게 가장 좋아하는 인간은 이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미즈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만일 신이 나에게 어떠한 인간이 되고 싶은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당장 대답하겠지요. 미즈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p.254)

요시오카는 미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고뇌의 내막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미즈의 헌신적인 태도와 야마가타의 수녀의 편지에서 이야기 하는 미즈의 모습, 즉 괴로움의 연대감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에 크게 동요하게 된다.

우둔하고 무력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자신을 배신한 요시오카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는 미즈의 사랑은 요시오카 안에서 되살아난다.

셀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미즈에게 했던 일은 남자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나만 겪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 외로움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에게 지금 작지만 안전한 행복이 있다. 이 행복을 나는 미즈와의 기억 때문에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만약 미즈가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딱 한번이라도 스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일까. 외로움은 흔적에서 오는 것일까. 그리고 만일 이 수녀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신은 이러한 흔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 외로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내 마음 속에 한 번 더 그 시부야 여관 일이 떠올랐다. 모기를 잡아 죽인 흔적이 남아있는 벽. 눅눅한 이불. 그리고 창문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속을 뚝뚝한 중년의 여성이 나른한 듯이 걸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나는 어찌 되었던 미즈라고 하는 여자와 나누었다. 황혼이 깃든 구름 아래

많은 빌딩과 집이 있다. 버스가 달리고 차가 달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 나와 같이 우리들과 같이…… (pp.254-255)

과거에 버린 여자가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다.

요시오카는 처음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고로 이야기하고 있던 여관'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전의 요시오카는 평범한 생활을 보내는 것에 혐오감이 있었다. 그러나 후에 이르러 사람들의 약함이나 평범함은 인간에게 공통되는 것으로 받아드리려고 변화하고 있다. 요시오카는 소시민적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작지만 안전한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과 겹쳐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외로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평범함과 범용함으로 가득 차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이해한 요시오카는 미츠의 고귀함을 생각한다. 이는 '나는 어찌 되었든 간에 모리타 미츠라는 여자와 나누었던 것이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힘쓰는 미츠의 삶을 알게 된 요시오카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자기의 이기심을 자각한다.

자신이 버린 여자이지만 한센병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의 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미츠라는 것을 요시오카는 알고 있다.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을 버린 사람을 미워하지 않던 미츠를 통해서 인간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요시오카가 믿을 수 있게 된다.

당시 나는 신 같은 것은 믿지 않았지만, 만일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하찮고 평범한 일상의 우연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였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현대에 이상적인 여자가 있다고 믿지 않지만 나는 지금 그녀를 성녀라고 생각하고 있다. (p.26)

「나의 수기」가 약 1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회상형식으로 되어 있다. 요시오카는 미츠를 회상하며 '인생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미츠는 성녀라고 이야기 한다. 요시오카가 인생의 의미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지나올 필요가 있었다. 요시오카는 인생의 경험을 쌓으면서 미츠가 남겨둔 흔적의 의미를 계속 묻고 있는 것으로 미츠의 대가없는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는다.

히로이시 겐지(広石廉二)는 요시오카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초월적이고, 의지라고 말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무언가 인간과 인간의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정념에 요시오카는 사로잡혔던 것이다.¹¹⁾

미츠의 죽음을 알게 되어 그녀로 인해 초래된 것을 ‘우리의 인생을 단 한번이라도 가로지르는 것은, 그곳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인가? 외로움은 그 흔적에서 오는 것일까’라고 요시오카가 회상하는 지점에 있어서 우연, 흔적, 외로움의 관계를 발견하고 있다. 자기가 버린 미츠를 통해 자신의 죄를 알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가 미츠라고 하는 평범한 여자와의 만남 속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점을 찾아낸 것은, 평범한 일상속의 행복이나 희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다른 사람의 따스함을 갈구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버린·여자』의 가운데점이 삽입되는 것에 의해 버린 다 라는 단어는 전후의 단어의 의미 관계를 상대화하는 작용을 한다. 신이라고 하는 시점을 두고 볼 때 버린다는 구한다도의 의미하게 되어 제목의 중층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¹²⁾

『내가·버린·여자』는 미츠라고 하는 여자의 인생을, 그녀에게서 성녀의 모습을 찾아낸 요시오카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요시오카의 내부에 미츠의 존재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의 상징이다.

11) 広石兼二(1991) 『遠藤周作のすべて』 朝文社、p.179.

12) 武田秀美(1994) 『遠藤周作『わたしが·棄てた·女』考』 『上智大学国文学論集』27、上智大学、p.31.

5. 『내가 · 버린 · 여자』 속의 신의 모습

가즈사 히데오(上總英郎)는 요시오카의 이야기가 회상 형식인 것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요시오카의 시선은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의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른바, 이중의 자기를 시간을 두고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양분된 자신을 두고 있는 거리는 무한대에 가깝다.¹³⁾

만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신은 이러한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의 우연을 통해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준 것일지도 모른다. 요시오카가 인생 속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를 그렇게 바꾼 것은 미츠가 남긴 것에 대한 회상에 있다는 것이다. 요시오카가 미츠를 성녀로 인식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한 것이어서, 회상은 이 사이에 되풀이 되어 자신의 체험을 반추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된다. 미츠에 의해 남겨진 흔적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 깊숙한 곳에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소하고 평범한 행복을 목표로 하여 살아 온 요시오카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에 의해, 인간의 인생을 응시하고 있는 어떤 시선을 느끼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시오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작용하며 인생을 움직이는 힘의 존재를 깨닫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의 소설에 나오는 예수는 아주 온화하고 일본인에게도 대단히 쉽게 친근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일본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내가 본 예수입니다.¹⁴⁾

엔도가 추구하는 신은 부정적 신이 아니라 한없이 부드럽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성적 신이라고 할 수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데, 엔도는 이 모성적인 사랑의 신으로서의 인물을 미츠에게 투영했다.

13) 上總英郎 (2005) 『遠藤周作へのワールド・トリップ』 社会評論社、p.202.

14) 遠藤周作(1997) 『私にとって神とは』 光文社、pp.23-24.

엔도는 『내가·버린·여자』의 표지 띠 속에 “나는 한 사람의 성녀를 쓰고 싶다. 우리들과 인연이 먼 성녀가 아니다. 아침의 전차나 오후의 거리에서 곁을 지나쳐 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성녀이다. 그 성녀의 이름은 모리타 미츠이다”라고 썼다.

엔도의 중간소설의 주인공들은 특별히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내가·버린·여자』의 모리타 미츠와 『오바카상』의 가스톤 보나펠트¹⁵⁾, 『헤치마군』의 도요토미 후나키치¹⁶⁾과 같은 인물 등을 들 수 있다. 이 인물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사항이 있다. 그들은 미인도, 위인도 아니고, 뛰어난 교양, 지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람을 짓밟고 기만하면서까지 탐낼 부나 명예나 지위를 가진 인간들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갖지 않고, 우둔하며, 요령이 나쁘고, 바보같이 정직하고, 남에게 속기 쉽고, 이용당하고는 버려져 모두에게 경멸당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삶을 부여받은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이론을 적용하면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경소설(輕小説)의 주인공들’이란 말하자면 그러한 슬픈 피에로라고 생각하고도 싶어질 것이다. 단지 그들이 갖는 공통점이란 사람을 의심할 줄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슬픈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삶이 불행하도 자학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불행이나 슬픔을 참고 있다는, 언제나 손해를 보는 인간들이다. 이러한 인간을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들은 살고 있지만, 소설을 다 읽은 후에 남는 감동은 어떠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후폭풍이며, 휴머니티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존재하는 숭고함 등에 접촉하

15) 『오바카상』의 가스톤은 너무 순수하고 바보스러워서 남에게 속고 무시당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믿는다. 이 바보스러운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이 숭고한 흔적을 남기고, 죄의식이 결여된 자들에게 인간의 양심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죄를 자각하게 하는 존재이다.

16) 헤치마군의 헤치마는 수세미란 뜻으로 주인공 도요코미를 뜻한다. 가스톤처럼 말상에 바보스러우나 주위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지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적인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경험을 나는 '인간성화'의 실감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한다.¹⁷⁾

타인의 불행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미츠는 언뜻 보기에는 바보같고 우둔하게 보이지만, 이런 미츠와 연관되는 사람들은 무한한 사랑과 감동을 받는다. 이에 대해 사토 야스마사(佐藤泰正)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내가·버린·여자』는 평범한 일상성과 생의 숭고성의 결합을 꾀한 엔도 본래의 문학세계를 나타내 보이는 걸작으로서 높이 평가한다.¹⁸⁾

평범한 일상이라는 모티브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인생을 표현하고자 했던 엔도의 창작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내가·버린·여자』의 등장인물의 평범한 성격이나 도쿄 거리의 일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작품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집필했다. 이는 또한 『오바카상』의 주제와 이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케다 도모츄는 오히려 『오바카상』으로 시작되는 경소설군 이야기 말로 가장 대담하면서 선명하게 사랑을 추구, 묘사한 작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¹⁹⁾고 말했다.

엔도는 1966년 『침묵』을 발표하여 종래 부정적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신(神)의 모성적인 면을 전면으로 표출하여 함께 괴로워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명확히 세상에 선보였다.

함께 슬퍼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엔도가 이해하고 있는 신의 모습인데, 그것은 그대로 『내가·버린·여자』의 미츠를 통해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17) 遠藤周作(1989) 『狐狸庵先生の天使たち-1-遠藤周作輕小説(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世界』『The Century (466)』世紀編集室、p.80.

18) 佐藤泰正(1975) 『遠藤周作の文学世界』『国文学解釈と鑑賞』6月号、至文堂、p.142.

19) 武田友寿(1975) 『遠藤周作の文学』聖文舎、p.156.

6. 결 론

본고에는 지금까지 미츠를 회상하는 요시오카의 내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다.

『내가·버린·여자』는 미츠라고 하는 한 여성의 인생을, 그녀에게서 성녀의 모습을 찾아낸 요시오카의 내면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평범한 일상을 멀리서 바라보는 숭고한 영역을 그리고 있다. 성스러운 것이란 그것과 만난 순간에는 감지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되돌아보는 것에 의해 실감이 깊어져 가는 것이다.

미츠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천해 나가는 괴로움의 연대는 이 작품의 약 3년 후에 발표되는 대표작 『침묵』에서도, 주인공 로드고의 박해받는 신도들에 대한 공감과 갈등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려져 간다. 엔도는 약자로서 자기에게 직면하는 로드고의 인생을 응시함으로써 존재의 근원에 다가가고, 침묵의 의미를 계속해서 묻는 그 안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내가·버린·여자』와 『침묵』은 시대배경이나 설정, 문체는 완전히 다르지만, 미츠의 인간적인 삶의 태도나, 로드고가 자타의 근원적인 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감싸는 새로운 예수상과의 만남이 있을 때까지의 고뇌의 과정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에 나타나는 성스러움을 실감해 가는 인간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내가·버린·여자』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침묵』의 주제를 보다 대중적이고 알기 쉽게 모색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간소설도 다른 순문작품과 같이 근본적으로 가톨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와 마주해야만 하는 신문소설에 있어서 특정 테마를 소재로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서구와 달리 가톨릭의 전통이 없는 일본에서는 성서의 말들, 고도한 종교철학이 담겨져 있는 가톨릭용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더 일반적이고 일본인들도 실감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여 풀어 쓸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재미에 이끌리고 문장 자체도 평이하고 읽기 쉽게 되어있어 이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가톨릭에 관심이 없는 일본인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면밀히 만들어낸 독특

한 엔도의 가톨릭세계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내가·버린·여자』에서 엔도는 자신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일본인의 몸매에 맞는 가톨릭을 모색하고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遠藤周作(1962) 「人気作家の野心作登場! 長篇小説 さようなら」 『主婦の友』 12月号、主婦の友社、p.132.
_____ (1984) 『わたしが・棄てた・女』 講談社、p.26、p.42、p.69、p.71、p.127、pp.129-130、p.150、pp.254-255、p.270.
_____ (1989) 「狐狸庵先生の天使たち-1-遠藤周作軽小説(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世界」 『The Century (466)』 世紀編集室、p.80.
_____ (1997) 『私にとって神とは』 光文社、pp.23-24.
_____ (2000) 『私とキリスト教』 遠藤周作全集12、新潮社、p.306.
上総英郎(2005) 『遠藤周作へのワールド・トリップ』 社会評論社、p.202.
久保田暁一(2006) 『日本の作家とキリスト教』 朝文社、p.7.
佐藤泰正(1975) 「遠藤周作の文学世界」 『国文学解釈と鑑賞』 6月号、至文堂、p.142.
武田友寿(1975) 『遠藤周作の文学』 聖文舎、p.148、p.156.
_____ (1989) 「狐狸庵先生の天使たち-1-遠藤周作軽小説(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世界」 『The Century (466)』 世紀編集室、p.80.
武田秀美(1994) 「遠藤周作『わたしが・棄てた・女』考」 『上智大学国文学論集』 27、上智大学、p.31.
広石兼二(1991) 『遠藤周作のすべて』 朝文社、p.179.

성명(한글) : 김 하 연

(한자) : 金 河 沈

(영문) : Kim, Ha-Yeon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f Endo Shusaku's 『Watasiga · Steta · Onna』
- Focused on Inner transformation of Yoshioka-

소속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E-mail : k_ganbare@naver.com

투고일 : 2014년 3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